

윤석열 대통령 부부,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초청 만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진심 다해 펼쳐나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상춘재 앞에서 직접 맞이하여 악수를 나눴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BIE 실사단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이전의 선진문물을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1세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

고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BUSAN IS READY'라고 영어로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파트릭 슈페르트 BIE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원장은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간에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을 100% 보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오늘 만찬에는 조수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도 참석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탤다. 조수미 홍보대사는 "부산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친절함,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2030엑스포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동안 대통령은 실사단에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했습니다.

만찬장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한



▲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초청 만찬을 가졌다.

국은 산업 성장면에서 아무자원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고 말하며, "이번 엑스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 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하여 제공했으며 만찬주 역시 실사단장 국적(독일), BIE 소재(프랑스)를 감안해 각 나라 와인이 제공됐다. 또, 만찬이 끝나고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

국악클래식공연팀 '화수목'은 BTS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주하기도 했다.

참고로 BIE 실사단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방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국회,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 '디지털 영마이스터' 육성

- AI·메타버스 분야 디지털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북소프트웨어고, 디지털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추진

경북도는 지난 4일, 의성군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의성군, 경북소프트웨어고, KT,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신기술 인재인 '디지털 영(Young)마이스터'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메타버스 등 늘어나는 디지털 산업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학교·기업 간 디지털 인력양성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가한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메타버스 분야 교육

과정 개발 ▲KT·한국인공지능협회의 유관기업 채용정보 공유 및 인재 추천 ▲AI·메타버스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기업현장 견학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특강 제공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화두인 AI와 메타버스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습득과 기술 활용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디지털 실무 역량 강화를 중점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이 경북소프트웨어고의 우수한 인재와 KT, 한국인공지능협회의 풍부한 교육 콘텐츠가

만나 지역의 디지털 인재양성에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소프트웨어고의 AI와 메타버스학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마이스터고 전환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번 협약이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산업, 경제, 관광 등 도정 전 분야에 첨단기술을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북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구성 중에 있으며, 민관 협력 「디지털 대전환 지원

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의 디지털 대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참고로 지금 방송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메타버스가 사장돼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메타버스의 긍정적 요소는 교육 분야로 메타버스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가상세계에서 놀이공원 건설 등 실제 직업과 차이가 있으나, 체험을 통해 진로 결정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 글로 이뤄진 교육방



▲ 최혁준 국장



식에서 실제 체험형 교육방식 수단인 메타버스를 도구로 실제적 경험을 통한다면, 외우기만 하던 어려운 역사도 마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친 기우로 여겨진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교육기관과 지역 산업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디지털 체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2023.5.25^목 ~ 5.29^월

제93회 **춘향제** 남원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의회, 으랏차차! 강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토론회 개최

동네 특성을 고려한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화해 광주시민의 강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1)은 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으랏차차 강한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악화된 만큼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강수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발제했다. 이어 이청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추진과 사무관, 윤현석(주)컬처네트웍 대표이사, 김홍 광주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설향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모종린 교수는 "마포, 용산, 성수동의 골목상권이 누구나 오고 싶은 문화지구로 자리매김한 것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그 핵심이 있다."며, "광주에도 동명동, 양림동이 있듯이 로컬크리에이터가 성장할 충분한 원동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길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성장 동력, 지역 기업 생태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랫폼 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록 실장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들에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배후혁신, 상품 추천, 간편 결



제 등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서비스가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제로로 기존 소상공인 관련 조례에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광주광역시 유통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조례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청수 사무관은 "최근 창의적 소상공인들이 강릉커피거리나 양양의 서평산업과 같은 그동안 없던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우리의 미래이자 신산업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대표는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만큼 광주에서부터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점포형 소상공인에서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 센터장은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는 확고한 브랜드를 통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선 뜻있는 소상공인이 모여 로컬크리에이팅을 통한 골목상권을 만들고, 문화와 스토리

를 입혀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향자 소상공인팀장은 "광주시는 중기부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에 맞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광주시민의 색깔과 감성이 묻어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를 국회의원)은 "3년여의 기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는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94%이고, 소상공인 종사자는 절반을 넘는 만큼 '소상공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 기업의 개별적 지원을 넘어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할 콘텐츠, 공간, 커뮤니티 기술을 모색하여 적용하는 광주만의 소상공인 정책 마련에 밀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울릉군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정 울릉, 청렴 울릉 실현 다짐

경북 울릉군은 4월3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남한권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청렴구호 제창 및 군수 청렴실천 당부 등의 말,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음 수수 금지, 부당지시 및 청탁근절,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결의대회 참석자 전원이 청렴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청렴구호를 큰소리로 제창하며 조직내 청렴도 향상 및 청렴실천 의지를



강하게 다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청정 울릉의 청렴 울릉 실현을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하고, 오늘 청렴결

의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부정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현중.조강제/기자

경북도의회,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현안연구과제 '꿀벌바이러스', '항공물류지원체계구축' 심의

경상북도의회는 3월 31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가 제안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와 통합항공배후지원체계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가 제안한 '반도체·항공 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심의위원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연구과제로 제안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도정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연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북도정과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2개의 연구과제는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7월경 연구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개최

공항소음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간담회 개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개최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에 참석해, 경남, 경기, 제주 등 실질적 민간공항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 함께 공항소음 피해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코로나 해제 시대를 맞아 다시 피해가 늘고 있는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 및 함께 소음 피해 지역의 관련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학범 부의장은 전기료, 냉난방기 설치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 피해 대책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소음 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 김해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인구 719명
- 김해공항 소음피해 인근지역의 인구 89,412명

아울러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 접수된 소음대책사업비 529억 원 중 25%인 151억 원만 배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김해공항의 소음피해에 맞게 그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역시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전국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와 함께 법과 행정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최광수/기자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첫 현장 방문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일 경주국민체육센터와 북경주체육문화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들은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경주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여가 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 2006년 3월 개관 했으며 지난 2019년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1층 수영장, 2층 체력단련실과 GX룸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경주체육문화센터는 2020년 7월에 개관해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



찬 삶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철 행정복지위원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경주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을 충실히 하고, 프로그

램이나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경주시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센터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력 넘치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봄꽃 가득한 남산에서 꽃비 맞으며 음악소풍 떠나보세요

서울시 남산공원, 왕벚꽃 개나리 진달래 수선화 등 다양각색 봄꽃으로 가득

남산의 산책로 곳곳은 백목련, 개나리, 진달래에 이어 왕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형형색색 화사한 봄꽃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매년 봄이면 남산에는 봄꽃을 보기 위해 상춘객(賞春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봄의 온기를 만끽하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직장인과 나들이객들을 위해 남산북측순환로입구에서 '2023년 남산꽃비놀이 음악소풍'을 오는 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꽃비놀이 음악소풍이 열리는 남산북측순환로입구는 남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책코스인 북측순환로의 시작점으로 봄에는 아름답리 왕벚나무 꽃길로,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길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산책 명소다.

'2023년 남산꽃비놀이 음악소풍'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운영을 못 하다 일상 회복에 따라 2019

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당초 4월 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 소식으로 인해 안전을 고려해 하루 늦춰 4월 6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이번 '2023년 꽃비놀이 음악소풍'은 다채로운 장르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참여로 대중적이면서도 봄과 어울리는 음악들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음악소풍의 첫째 날인 6일에는 팝재즈밴드 튠아라운드(Tune'Around)와 어쿠스틱 듀오 우지연밴드가 대중적인 선율과 다채로운 노래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7일에는 카혼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예술가 콤마(Comma)가 8일에는 K-POP밴드 글루(Glu)가 9일에는 루프스테이션으로 창의적이고 신나는 공연을 선사하는 몽키노트와 보컬 그룹 코다브릿지가 이어서 다양한 음악들로 감성 가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음악회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남산북측순환로 내에 위치한 필동전망대에서는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남산의 벚꽃도 감상하고 봄날의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원사 진관'을 운영해 공원사진사가 촬영한 사진 또는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준다.

봄꽃으로 만발한 남산의 아름다운 봄 풍경 속에서 열리는 '2023년 꽃비놀이 음악소풍'은 남산을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하재호 소장은 "봄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꽃길을 이루는 지금이 남산을 걷기 가장 좋은 때"라며 "봄바람 타고 흐르는 음악과 함께 남산의 봄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은평구, 다문화자녀에게 모국어 교육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서울 은평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 '띠앵비엣 LOVE'를 추진한다.

'띠앵비엣 LOVE'는 서울시 공모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의 교육분야서 선정돼 추진하는 은평구의 베트남 모국어 지원 사업이다. 구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구는 올해 베트남어 기초, 회화, 문법 등의 내용으로 초급·중급반으로 구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미리 대상자 수요조사를 시행해 파악한 욕구를 반영했다.

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실시간 온라인(Webex)으로 은평구가족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방학 기간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친밀

감 향상 및 활발한 교류 지원을 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3년간 '띠앵비엣 LOVE' 사업을 추진해 총참여 연인원 3,032명, 만족도 평균 4.8점을 달성했다. 올해는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참여 방법 등은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학생기 자녀를 위한 맞춤형 모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서초구, 악기거리서 정오의 클래식 버스킹 펼친다!

예술의 전당 앞 서초음악문화지구(서리풀 악기거리)에서 점심시간의 클래식 음악 산책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의 거리 분위기가 물씬 풍길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일부터 10월 까지 평일 주 3회 정오에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야외 문화공간서 약 50분간 청년예술인들이 펼치는 '2023 정오의 클래식디저트'를 진행한다.

'정오의 클래식디저트'는 지난해부터 서초음악지구에서 진행된 청년음악예술인들의 버스킹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4명의 청년예술인들과 장소 확대 및 테마별 공연기획을 통해 본격적인 공연을 펼친다. 공연장소는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인근 서초3동 사거리 △예술의전당 앞 마을마당 △신중어린이 공원으로, 장소별 공연 테마를 달리한다. 또, 크로스오버 장르의 비중을 늘려 전통 클래식에서 벗어난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신중어린이공원에서 공연에 산책 등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한다. △Ost △재즈 △팝 △클래식 장르를 넘나들며 떠나는 '음악여행'이라는 테마로 'Autumn leaves', 'Sing Sing Sing' 등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현악기 연주회를 열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낸다.

이와 함께 '서초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서초3동 사거리에서는 다양한 인파가 몰리는 만큼 짧은 점심시

간 직장인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를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북향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 전당 앞 마을마당에서는 전통 클래식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더한다.

한편 이외에도 구는 4월부터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를 진행해 50여 명의 청년 예술인들이 서초구 전역 마을 곳곳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바퀴 달린 서초콘서트'로 주민들의 사연을 받아 아파트, 주택가, 학교 등에 방문하고, 이동식 공연 차량에서 인디밴드, 국악,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사한다.

구는 공연에 참여하는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장소 및 음향장비 등을 제공하고 1인당 최대 20만원, 1팀당 최대 80만원의 공연료를 지원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2023 정오의 클래식디저트'가 문화예술 공연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예술인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곳곳에서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민생 경제 살린다...영등포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 지원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구는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5인 미만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체는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채용 3개월 이후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구는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후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사증 취득명부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우수지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가동...구민 차량 지킨다

잠실·탄천유수지에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송파구는 이상기후로 인한 예상치 못한 폭우 시 저지대 우수지 주차 차량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잠실·탄천유수지에 '차량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실, 탄천 유수지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비수방기간에 한하여 우수지 유휴공간에 자율적 주차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호우의 패턴이 불규칙하여 주차 차량의 침수위험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11월 19일 하루 68mm(시간당 최대 18mm)의 집중호우로 우수지 미출차 차량 11대가 침수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에 구는 약 3억 원을 투입, 관내 2개소 우수지에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차량 침수 신속알림시스템은 우수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입출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실로 송출하고, 기상정보, 수위정보, 재난영상(CCTV) 등을 분석해 차량 침수 여부를 판단한다.

차량 침수 상황 예측 시에는 신속하게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폰 문자로 침수위험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동시에 주차장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음성통보장치·전광판 등을 통해 침수 상황·차량 대피 등을 안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수지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침수를 예측해 대피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성북구,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자 선착순 100명에게 기프티콘

300명에 음료 기프티콘 혜택...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동참 독려

성북구가 이달 말까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납부와 ETAX 현금으로도 전환이 가

능하여 참여 혜택이 크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신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 후 에너지 정보 입력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추첨을 통해 200명

에게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금천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구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는 국·시비로 지원되던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금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신생아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0만 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일 경우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6개월로 줄어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해야 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하여 지원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용인특례시, '좀 더 나은 주거환경 옮겨드리기' 사업 벌인다

이상일 특례시장 정책 약속...쪽방 등 취약가구 대상, 공공임대 이주 정착 지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3일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앞둔 A씨를 찾아 어려움을 듣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이 시장과 만남을 가진 A씨는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단칸방에 거주 중이었다.

용인특례시는 고시원과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와 입주, 청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생필품 구입, 개·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1인가구 289만원) 이하인 가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A씨가 힘든 겨울을 버티기 위해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에 주거지원 정책을 좀 더 촘촘히 짜 달라고 주문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기업도시,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3일 송포동 '주민과의 대화' 진행, 시 핵심정책 및 현안 소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3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작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송포동을 포함한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내년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막혀있던 기업들이 몰려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DS지구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명칭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한류월드, 고양방송영상밸리, 장항지구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이며,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어, 공업지역 물량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이 시장은 민선8기 핵심공약



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웠고, 취임 후 1호 결재가 '경제자유구역 TF팀' 출범이었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오히려 과밀촉진권역이 되어버렸다”며 “집만 짓고 기업이 없으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고양시의 베드타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러, 전사복합사업(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에 맞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등 재건축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재건축 사업 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면서 “서울 테헤란처럼 주역역 등역세권 주변에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들어서는 빌딩숲을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시정현안 중 백석동 신철사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원당 현철사 주변 개발과 관련해 “원당역 주변은 주택이 아닌 기업 임주로 도시기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현 시청사까지 상업빌딩과 R&D센터 등을 만들기 위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권까지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정월평천 준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내 보행로 개설, N007누리버스 경유지 증설 및 운행차량 증차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영기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제4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 선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3일 2023년 1차 총회 열고 회장 선출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1년간 이끌게 됐다.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3일 오후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의 허브이다.

박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 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장

을 운영해 온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치분권에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열정을 인정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 지방정부 제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자치분권대학 어워드’를 열고 자치분권



대학 우수 수료생 및 캠퍼스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광명시는 캠퍼스 부문 특별상을, 광명시민 이육, 기해금씨는 개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 신설한 자치분권대학 연구교육원의 위원으로 광명시민 39

명을 포함한 673명의 시민을 위촉하고 ‘자치분권대학 연구교육원&자치입법원 가동을 위한 약속’ 등 교육원의 새 출발을 자축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했다.

윤용민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철저 지시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을 지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 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21개 소관 부서장 및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피해복구현황 및 올해를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산시가 올여름 자연 재난을 대비한 현황을 보면 전년 피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과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

한 가운데 ▲저지대 침수 우려 반 지하 주택 ▲하천변 침수우려도로 ▲지하차도 ▲대형 건설공사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전통제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신장빛물펌프장 ▲은계빛물펌프장 등 수방시설 정비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시민들께서는 하상도로 및 하천변 이용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안성시, 공공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안성시는 2023년 1분기에 682명의 단기 공공일 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일자리는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정비원,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인부 등 20개 이상 분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청년들에게 소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매월 행정과에서 통합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부서와 읍·면·동에서도 직접 채용하고 있어 채용을 원활한 경우 안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주기적으로 참고하면 된다.

통합채용이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

정과에 채용의뢰를 하면 일괄 채용해주는 방식으로 채용의 경제성, 절차의 일관성·공정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일자리가 필요한 안성시민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한편, 나아가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살기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장안구, 대형 농막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

규정 면적 넘어서는 농막 등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수원시 장안구가 대형 농막 설치 등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선다.

본격적인 농경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농경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규정 이상의 농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막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와 자재 보관, 수확한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막이 연면적 20제곱미터를 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구는 기존 농막에 테크나 잡석을

추가로 설치해 면적을 규정 이상으로 늘리거나, 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효율적인 농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이번 실행조사에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사한 봄꽃 가득' 시흥시 장곡동, 아름다운 꽃길 조성 힘써

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31일 지역 내 7개 유관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행사를 열었다.

동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이뤄진 봄꽃 식재 행사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노인회 등 7개 단체가 열정적으로 참여해 장곡동 내 80여 개 화단에 베고니아, 작록나무 등을 심어 주민들에게 향긋한 봄기운을 가득 전했다.

‘장곡동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돼 80여 개의 화단을 조성해 왔다.

이날 식재를 마친 각 유관단체는 80여 개의 화단에 물주기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담해 주민들이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곡동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장곡동은 ‘우리 마을은 주민과 함께 가꾼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각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스

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는 동네 만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도영찬 장곡동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유관단체장 및 유관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에 작게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고, 장곡동 주민들이 봄꽃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어두운 밤에 떠나는 와일드 맹수 탐험 에버랜드, '나이트 사파리 트램' 오픈

- ◇ 호랑이, 사자, 불곰 등 활동성 높아진 야행성 맹수 근접 관찰
- 독수리 사냥하는 사자, 꿀꿀 먹이 찾는 불곰 등 역동적인 사파리 탐험
- 초식동물 조형물에 소뿔, 고기 등 먹이 넣어 맹수들의 사냥 본능 경험
- ◇ 지난 굿모닝 사파리 인기 이어 '얼리버드 로스트벨리 투어' 선보여
- 로스트벨리 10주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추억 공유 이벤트'도 진행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어두운 밤에 더욱 활발해지는 야행성 맹수들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나이트 사파리 트램'을 선보인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호랑이, 사자, 불곰 등 7종 50여 마리의 맹수들이 서식하는 사파리월드에서 야간 탐험하며, 활동성이 높아진 맹수들의 사냥 본능과 와일드한 움직임을 몰입감 있게 관찰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동물들의 생태 습성을 고려한 인리치먼트(행동 풍부화) 도구를 사파리월드에서 다양하게 설치해 독수리 조형물에 매달린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 나무 타고 오르는 호랑이, 고공 꿀꿀에서 먹이 찾는 불곰 등 고객들이 맹수들의 민첩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젤, 물소, 하마 등 초식동물 조형물도 곳곳에 배치하고 소뿔, 고기와 같은 먹이를 안에 넣어 두어 맹수들이 실제 야생에서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특히 핀 조명, 네온 조명, 반딧불이 조명 등 밤장 주변 야간 조명을 강화해 연출효과를 높이고, 각 동물들의 생태습성과 사냥법 등에 대한 전문 성우의 설명이 곁들여져 더욱 실감나는 고객경험이 가능하다.

회당 약 20분간 진행되는 나이트 사파리 트램은 3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겨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가까운 평가를 받으며 매년 행력을 기록했던 굿모닝 사파리 투어의 인기로 힘입어 로스트벨리에서도 다양한 초식동물들의 활발한 아침 일상을 가장 먼저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월 화수목에 진행되는 '얼리버드 로스트

벨리 투어'에서는 코뿔소 진흙목욕, 코끼리 풀장 등 각 동물들의 생태 특성 및 인리치먼트 활동을 전문 사육사와 탐험대장이 재미있는 대화 형태로 설명해준다.

기린 먹이주기, 동물보호 교육, 포토스팟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기념 배지도 선물로 증정한다.

□ 나이트 사파리 트램, 얼리버드 로스트벨리 투어 등 동물 탐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및 잔여분 현장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별도 이용료가 있다.

* 이용료 : 나이트 사파리 트램(1인 20,000원)
얼리버드 로스트벨리 투어(1인 30,000원)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에버랜드는 오는 20일 초식 사파리 '로스트벨리' 오픈 10주년을 앞두고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들의 추억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버랜드 인스타그램(@witheverland)과 네이버 '주토피아' 카페에서 펼쳐지는 이번 이벤트는 4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로스트벨리와 함께 했던 사진이나 사연을 인스타그램 댓글 또는 카페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이벤트 응모자 중 50명을 선정해 로스트벨리 10주년 기념 디자인이 인쇄된 한정판 에버랜드 기프트카드 2만원권을 선물하며, 우수 사연은 SNS 콘텐츠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로스트벨리 오픈 10주년 스페셜 워크를 운영해 고객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개소 추진 중. 올해 4개소 개통

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곳 추진 중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52곳이라며 이 가운데 올해 ▲지방도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국지도 오남~수동 ▲지방도 파주 적성~두일 ▲지방도 파주 문산~내포 1 등 4곳이 올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52개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9개, 보상 또는 설계가 진행 중인 곳이 23개, 설계를 시작하는 곳이 4개, 투자심사를 완료한 곳은 3개, 투자심사를 의뢰한 곳이 3개라고 진척 상황을 설명했다.

23곳 가운데 ▲지방도 남양주 화도~운수 ▲지방도 연천 두일~석장 ▲지방도 안성 고삼~삼죽1 ▲지방도 여주 처리~우만 ▲국지도 양평 양근대교 등 5개소는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지방도 360호선 양주 연곡~방성 등 4개 구간은 올해 설계를 시작하고 나머지 지방도 325호선 이천 관리~광주 유정 등 3개소는 투자심사를 완료했다.

지방도 310호선 화성 발산~수면 등 3개소는 투자심사를 의뢰해 사업계획을 수립을 앞두고 있다.

52개소의 총사업비는 3조 9천634억 원으로 올해 투입 예산은 1천724억 원이다.

경기도는 열악한 경기 북부 도로 인프라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예산 1천724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1천96억 원을 북부지역 국



도·지방도로에 편성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지방도로는 주민 생활 편의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로 예정대로 도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사 진행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와 '달.고.나.' 채용박람회 전국 최초 동시 개최

첨단 산업 기술인 양성과 산학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3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와 달.고.나.(달콤한 고졸 취업나도 할래) 채용박람회를 전국 최초로 동시에 개최했다.

2023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첨단 산업 기술인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주관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목재 ▲IT·디자인 ▲공예·의류 ▲미예 등 7개 분과 48개 정식 직종과 3개 미래신도 시범 직종을 포함해 모두 51개 직종으로 열린다.

참가신청은 도내 41교 학생과 일반인 등 총 533명으로, 성남테크노과학고 등 총 8개 경기장에서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개회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 도청·도의회 관계자, 대회 운영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다수 참석해 기능경기



대회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경기장에서 기능경기대회와 동시에 개최한 달.고.나. 채용박람회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채용 면접관, 진로직업 체험관, 정책 홍보관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채용 면접관에서는 총 18개의 기업, 단체, 기관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 면접과

교·청년 고용지원 정책사업의 홍보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의 동시 개최로 숙련된 기술 인력 양성과 함께 산학을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도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대회는 산업에 필요한 여러 현장의 기술과 첨단 기능을 연마하고 실력을 겨루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교육이 직업과 연결되도록 채용박람회에 여러 기업이 참여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더욱 뜻깊다"고 인사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기교육의 변화로 산업과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뒷받침하며 이끌어가는 선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백남준아트센터 새로운 미술관 경험을 위한 《즐거운 감상법 제안》

- ▶ 2023년 새로운 미술관 경험을 위해 즐거운 감상법 제안 : <보다, 천천히>, <보다, 함께>, <보다, 자세히>
- ▶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는 감상법 <보다, 천천히>
- ▶ 매개자와 함께 작품의 맥락을 이해해보는 감상법 <보다, 함께>
- ▶ 작품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는 감상법 <보다, 자세히>
- ▶ 4월 세계적인 예술 감상 운동 슬로우 아트 데이(Slow Art Day) 개최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2023년 연간 《즐거운 감상법 제안》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롭고 즐거운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즐거운 감상법 제안》은 미술관 본연의 기능인 작품의 '실물 감상'에 중점을 두고, <보다, 천천히>, <보다, 함께>, <보다, 자세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보다'는 작품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다(Look)'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바라보는 '해보다(Try)'의 의미와 함께 '한층 더(more)'라는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다중적인 의미를 통해 감상자가 '보다'라는 행동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적용해 감상의 방식도 다채롭게 행할 수 있도록 명명한 것이다.

《즐거운 감상법 제안》의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보다, 천천히>는 관람객에게 작품 감상의 시간을 늦추어 보는 방식을 제안한다. 2019년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 연구에 따르면 관람객은 한 작품에 평균 8초간 머문다고 한다. 천천히 보는 감상법은 예술을 더 차분성 있게 바라보다 더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써 관람객 스스로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보다, 천천히>는 관람객 스스로 작품 감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감상용 키트(감상용 의자, 타이머, 활동지)를 제공하고, 3-3-

법칙에 따른 감상 방법을 제시한다. 최소 3분 동안 한 작품을 바라보고, 3번 다른 방법(혹은 위치)에 따라 감상해보고, 미술관이 제안하는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며 감상해보는 것이다. 감상의 시간을 늦추고, 시각의 높이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명 작품의 새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천천히>는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백남준아트센터 로비에서 감상용 키트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을 천천히 보는 감상법은 국제적 예술 행사인 '슬로우 아트 데이'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지며, 2023년 슬로우 아트 데이인 4월 15일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두 번째 감상법 제안은 <보다, 함께>이다. 작품을 매개자와 함께 보며 정보를 얻거나 감상을 공유하며 나의 감상을 확장해보는 방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학예사, 테크니션, 작가, 도슨트 등 다양한 매개자와 함께 전시와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 자체에서 보이지는 것 외에 작가의 의도, 작품 재료, 제작 과정 등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작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함께>는 3월 29일 신소장품전 《시간을 소장하는 하는 일에 대하여》의 기획자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간 비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 번째 제안 <보다, 자세히>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하반기 온라인으로 발간 예정인 「기술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백남준의 작품은 대체로 기술적 설치가 수반되는데 관람객이 전시장에 있는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물리적·전기적·비디오 연결과 작동을 상세히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보다, 자세히>는 이 보고서와 함께 작품의 숨은 이면을 자세히 살피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가와 작품에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은 하반기 중 공개되고,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온라인과 가상현실을 통해 예술을 경험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미술관 또한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확산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결국 미술관의 본연의 가치는 실물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있다. 이번 《즐거운 감상법 제안》을 통해 미술관은 본연의 가치를 획득하고 감상자들도 다시 작품 앞에서 서서 실재만이 줄 수 있는 아우라와 감동을 느끼며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바란다.

조혜영/기자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성료

올해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자 66명 포함, 총 82명 영예 안아

경남도는 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내 농수산물 중산자와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현철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도의원, 농어업 유관기관 단체장, 수출탑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자에 총 66명을 선정했다. 농수산물 수출탑은 9개 부문으로 오천만 불 탑 1명, 천만 불 탑 1명, 오백만 불 탑 1명, 삼백만 불 탑 1명, 백만 불 탑 5명, 오십만 불 탑 10명, 삼십만 불 탑 8명, 십만 불 탑 39명이 받았다.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에는 창원시가 선정됐다. 창원시는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수출신장률에서 성과를 달성했으며,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좋은 진주시, 수출전문업체 육성분야와 자체 해외시장개척 활동이 활발한 함양군, 수산물분야 수출실적 및 수출시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통영시가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김해시, 거창군, 밀양시가 각각 수상했으며, 밀양시는 가공식품 수출이 많이 증가해 지난해에 대비해 2배에 가까운 수출신장률을 기록했다.

최고 수출 농업단지 평가에서는 김해진영농협단감수출농업단지가 선정됐다. 김해진영농협 단감수출농업단지는 93ha 면적에 54명의 소속 농가가 동남아 지역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159만불을 기록하며 단감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최고 수출 농업단지에는 증서 수여와 상사업비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쌀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거창군 배수경 주무관 등 공무원 4명과 조미김 수출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농업회사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법인(주)자연향기 권자연 대표 등 농수산물수출 관계자 4명에게는 도시사 표창이 수여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에 많은 분들이 수상한다는 것은 경남의 농산물 수출이 그만큼 기반이 튼튼해졌다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역의 농수산물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에도 미래농업의 희망인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청년마케터를 지원하고,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국가별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시범 추진은 물론 수출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품목별 수출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24년 수출물류비 폐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현/기자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협의체 8차 회의 개최

의성군은 3월 31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의성군 발전 방향이 담긴 공동합의문 실현을 위한 신공항 행정협의체 제8차 회의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차 회의에 따른 분야별 추진실적, 공동합의문 이행 등 신공항 여건분석 △이전사업 추진일정 및 현황 △쟁점사항 △추진계획 등 기본적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3월 국토위 교통법안 심소위원회 심사한 특별법 내용 및 공동합의문 실현을 위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의성군은 소음만 떠안는다.'라는 주장에 대해 민항사타 발표 6월 말 이후 특단의 대책과 눈에 보이는 현실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반대 여론 급부상을 또 다른 지역 간, 기관 간 갈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민항사타 발표 이후 충분한 항공수요, 항공물류, 시설규모에 따른 의성군 미래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분야별 사업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의성의 백년대계를 위

한 공항도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집중 토론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도 공동합의문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우공이산의 마음가짐으로 분야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기관과 상호협력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가 나오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14일 '거미&백아연&스탠딩에그 콘서트' 개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관장 배정화)에서는 오는 4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에 '거미 & 백아연 & 스탠딩에그 콘서트'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대표 감성 보컬리스트 거미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다채로운 음악으로 발라드의 진수를 보여 주며 감동의 여운을 전달한다. R&B, 발라드, 댄스 등 어떤 장르도 소화하며 발표하는 앨범마다 히트했으며, 대표곡으로는 'You Are My Everything', '그대 돌아오면', '기억상실' 등이 있다.

맑고 청아한 음색의 소유자 백아연은 SBS의 K팝스타 시즌 1의 주역으로 2015년 발매한 자작곡 '이렇게만 그리지말지'가 멜론차트 연간 4위라는 역주행 열풍의 신화를 이끌며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후 '쏘쏘', '달콤한 빈말'로 연속 대히트를 치며 공감형 싱어송라이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인디밴드의 대표주자 스탠딩에그는 2010년 결성된 음악 그룹으로, '오래된 노래', '너만 예뻐'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며 제7회 멜론뮤직어워드 인디부문 수상, 제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의 파퓰러 싱어상 등을 수상했다. 그 외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와 '힘쎈여자 도봉순' 등 다수의 OST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시간은 약 90분 정도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권 구입은 4월 5일(수)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내 티켓링크 제휴 예매 채널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공연정보 및 할인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54-420-7824, 홈페이지 <https://www.gc.go.kr/gcart/main.do>

김동현/기자

천영기 통영시장 "기후변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미래100년의 도시 온전히 물려줘야"

햇살 좋은 4월, 직원들에게 책 한권으로 재충전 권유

통영시는 지난 4월 3일 시청 강당에서 봉청 및 읍면동 등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에 이어 한 달 만에 4월 직원 정례회와 '살고 싶은 미래 100년의 건강도시 통영'이라는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관광지와 강구안 등에는 모처럼 차량과 인파들로 봄여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는 가운데 천영기 시장은 이날 청결한 환경과 시민들의 질서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주처환경 조성과 거리에 화사한 꽃들이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3월 31일 산양읍 영운항 일원에서 열렸던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통영시 최초로 현지 대통령이 공식 방문했으며, 그동안 행사 유치와 준비에 노력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어려운 상황임으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 2월말,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 상해보험 당한 경우 지원해 주는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14일 부터는 8천3백만원의 시 예산으로 모든 시민대상 2023년도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통영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우선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시청 의지를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2월과 3월 문체부와 한국관광사가 추진하는 2023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사업 3년연속 선정, 문체부 주관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등은 앞으로 국비 4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관광 및 섬 관광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관광시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밤까지 맡길 수 있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5개소가 추가 되어 총 23개소가 지정 됐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홍보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

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천영기 시장은 올해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은 이상기후 현상인 '라니냐'로 인한 결과이며, 지난해 수도권에는 폭우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는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경험했으며 전 부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모델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온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 직원들에게는 유명 작가 시드니 스미스의 책을 읽을 때야말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불 햇살이 기분 좋은 4월에 책 한권 친구삼아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것도 권유했다.

이용준/기자

남해군,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남해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해당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기관장의 혁신 노력도 ▲조직문화 혁신 ▲협업 추진 성과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에 올랐



다.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2700만 원도 확보했다.

남해군이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로는 ▲눈내목육당 미술관 운영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 운영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디지털로 사랑을 전해요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등이다.

이용준/기자

어린이와 군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봉화군, 어린이 놀이터 디자이너 캠프 열어

관내 초등학교 대상 놀이터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진행



봉화군은 지난 1일 내성천 축제장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희망을 담기 위해 '모두의 놀이터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는 지난 3월 군청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관내 초등학교생 24명이며, 편해문 놀이터 총괄기획가와 함께 놀이터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놀이터 예정지를 방문해 놀이터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으며, 오후에는 군민행복센터에서 어린이가 놀고 싶은 놀이터 모형을 만들어 자유롭게 친구들과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공룡 미끄럼틀, 가래떡 철

봉, 돌고래 숲, 질라인 등 재미있고 창의적인 놀이환경을 원했다. 또한 놀이터 내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

편해문 총괄기획가는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최선의 환경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면서 모험적인 놀이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린이 놀이터 디자이너 캠프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모두의 놀이터'개장까지 어린이와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Advertisement for a concert featuring Gami, Baek Ah-yeon, and Standing Egg. The concert is titled 'Standing Egg Concert of Spring' and is held at the Gumi & Baek Ah-yeon x Standing Egg venue on April 14th at 7:30 PM.

대구 서구, 환경정화운동 "서구쓰담, 클린서구" 추진

4월 한 달간 비대면 환경정화운동 서구쓰담, 클린서구 전개

대구 서구청은 4월 한 달 동안 구민을 대상으로 동네의 불결지를 청소하는 모습을 촬영 후 서구청 블로그에 공유하면 선착순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인 "서구쓰담, 클린서구"를 추진한다.

서구청은 "서구쓰담, 클린서구(서구의 쓰레기를 담아 치우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자)"를 통해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불결지를 확인하고 스스로 청소하며 골목길 청결에 대한 주민 의식 향상 및 자발적인 청소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관내 공원, 산

책로, 어린이 통학로 등 어디서나 불결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활동사진(청소 전·후,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10L)을 구청 공식 블로그 댓글 달기를 통해 인증하면 선착순 300명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구민들이 '서구쓰담, 클린서구'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 스스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Advertisement for the 'Seogu-ttdam, Clean Seogu' campaign.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ampaign period (April 1st to 30th), the goal of cleaning up the district, and the prize of a mobile gift certificate for the first 300 participants. It also lists the campaign target (Seogu residents) and participation method (uploading photos of cleaning activities to the official blog).

정금자/기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벼 종자 소독으로 키다리병 예방하세요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관내 벼 재배 농가에 종자 소독제 1.612병을 공급했으며, 4월 중순까지 농가 현장에서 벼 종자 소독에 대한 중점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도에는 관내 벼 재배포장에서 전반기 키다리병, 후반기 이삭누룩병이 많이 발생되어 농가에서 많은 걱정거리가 됐다. 따라서 올해는 종자 소독 지도를 통하여 관내 벼 재배 농가들에 대한 벼 종자 전염성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벼 종자 전염성병인 키다리병·도열병·깨씨무늬병·세균성알마름병과 벼 잎선충 등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종자 소독 방법은 물 40ℓ에 전용 약제와 종자 20kg를 넣고 수온 30℃에서 48시간 침지 후 맑은 물에 2~3회 세척(약제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약제 소독 시 수온이 20℃미만일 경우 방제 효과가 매우 낮아지므로 온도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약제 침지 소독 전 1~2일 정도 지하수 등 상온의 물에 침종하게 되면 종자 내부 수분 공급으로 인한 약제 성분의 범퍼 속 침투가 높아져 종자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 농업인이 종자 전염 병해충 예방과 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개 읍면에 종자 소독제 공급과 이장을 통한 홍보, 리플릿 배부 및 농가별 현지 출장으로 종자 소독 요령과 품종 별 특성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이윤철 소장은 "종자 전염성병의 예방을 위해서 범퍼 파종 전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단지 선정

예천투어, 민속놀이축제, 제빵체형, 시니어 마음치료 등 3천만 원 지원



예천군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9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해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세대간·소속감 강화로 이웃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개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3월 22일 예천군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천읍 예천이테크코아루아파트 ▲호명면 통일스위트, 아이파크, 호반베르디움1차·2차, 우방2차, 센텀, 모아엘가아파트, 센트럴파크가 선정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예천전통

재인식(예천투어), 민속놀이축제, 제빵체형 활동, 시니어 마음치료 심리 미술 등 총 19개다.

특히,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까이 살고는 있지만 교류가 단절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영의 권축과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의 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관계 회복으로 주거 만족도 개선은 물론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민방위 집합교육' 4년 만에 정상 재개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민방위 집합교육을 4년 만에 정상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은 오는 18~21일, 23일 총 5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영주시민회관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민방위대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제도 교육과 각종 민방위사태 시 대처능력 배양은 물론 실생활에 유용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요령을 중점으로 교육한다.

특히 실전교육은 방독면 착용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실습을 통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교육편의성 증대를 위해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3일 일요일 주말교육

을 실시한다. 또한 타지역에 거주하는 대원 중 부득이하게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의 경우 교육은 가까운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올해 3~4년차 이상 민방위대원(2시간) 800여 명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1시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꼭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세부일정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지자체 최초 내수면 어패류 부산물 산업화 경북도가 앞장선다!

올해 처음 연어류(송어 등) 중심으로 내수면 부산물 재활용 연구개발 시작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내수면수산업연합회는 4일 안동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최초로 내수면 어패류의 부산물 활용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은 향후 수산 부산물 산업의 확대를 대비해 연어, 송어, 산천어, 메기, 다슬기 등 지역 내수면 수산자원 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북 내수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수산 부산물은 해면에서는 굴, 전복 등의 패각 위주이며, 내수에서는 연어 부산물을 원료로 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다양한 내수면 어패류를 활용한 부산물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 기능성 소재화 및 고부가가치 품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연어류(송어 등) 부산물 이용 산업화 개발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관련 정보교류 및 회의 개최, 시기·단계별 내수면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참여 기관의 기타 공동협력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내수면 어패류 부산물 산업화 개발은 침체된 경북도 내수면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이 되어 민간 일자리 창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연구 분야



다"라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수산 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 센터 건립을 추진해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내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안전한 부산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울진군수 오픈 강의 개최!

울진군은 지난 3월 31일 왕피천공원 내 왕피천문화관에서 울진군민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오픈 강의를 가졌다.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성된 명실상부한 민·관·학 협력의 평생학습대학이다.

울진군캠퍼스의 학장인 울진군수가 강의를 진행한 이번 오픈 강의에는 울진군민 및 울진군 공무원 등 300

여 명이 참석하여, 군정 목표인 '실용적인 경제, 차별화된 관광, 감동 주는 복지, 섬기는 군정'을 키워드로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 진행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 평생학습대학을 구축하여 군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며 "군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따뜻한 말을 전했다.

장문화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첫 입학식 찾아 학생 격려

경북교육청, 한국어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3일(월),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첫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개소한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중도입국학생, 외국인 가정 자녀 등 학교장이 추천하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1기수당 3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입학식은 위탁교육을 신청한 학생 중 러시아, 태국, 필리핀, 방글



라데시, 중국의 5개 언어를 사용하는 초등 28명, 중등 32명이 한국어 공부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 후 각자의 교실에서 친구, 선생님과 첫 만남을 가졌으며 3개월간 공부할 학

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한국어교육과정(KSL)을 기반으로 한국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합창, 태권도, 드론, 풋살, 무용 등의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기본생활습관, 한국문화 이해 교육,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첫 입학식을 축하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3개월간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길 바라며,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물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23회 부산국제건축제' 활력 업(UP)!

국내외 건축가 초청강연회, 건축영화제, 시민건축투어, 어린이 건축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 준비

부산시와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국제전으로 개최되는 '제23회 부산국제건축제'를 전문가의 작품전시와 함께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시민소통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국제건축제'는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영남권 최대 건축 분야 문화행사이다. 짝수년에는 국내전, 홀수년에는 국제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전으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국제도시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산의 잠재력과 가능성 발굴'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최장소를 벡스코 제1전시장(2B홀)으로 변경해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향만도시 우수 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도시건축'이 국제전으로 열리고, 젊은 건축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담은 ▲'퍼블리온과 폴리 작품전'을 비롯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바다, 도시, 카페를 테마로 한 ▲'일상 속의 건축문화 작품전', 부산시 도시건축 현안을 시민 눈높이에서 풀어낸 ▲'부산시 도시건축 정책 소통의 장' 등을 선보인다.

또한, 시민 영상공모를 통해 사전에 선정된 ▲시민공모작품전과 ▲부산지역 대학교 학생작품전, ▲어린이 건축작품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전시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명건축가 초청강연회, ▲건축영화제, ▲어린이 건축체험부스, ▲시민건축투어, ▲건축 상담부스, ▲감사드림 시상식 한마당 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부산국제건축제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생, 청년 등 각양계층의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행사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 시교육청에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와 진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단계 관람을 협조 요청했다. 오는 5월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아동(유치원 등)과 가족, 친목 중심의 단체 관람 신청을 받아 건축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소통형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우리 동네의 도시미관 비전과 지역의 건축 문화자산을 알리고 애정심을 고취하



기 위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고자, 부산시 16개 구·군의 적극적 축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수한 건축문화자산이 매력도시 부산을 만든다"라며, "제23회 부산국제건축제가 시민과 건축전문가들이 함께 좋은 건축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문화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경주시,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세계 원전수출시장 선점 기대

-문무대양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대기업 등 225개 입주 원해, 취업유발 효과 22,779명, 생산유발 효과 6조7357억원
-착공 목표 2026년,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기반 위에 원전 중심의 과학산업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경주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3966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경주 문무대양면 일원에 세계 원전수출시장을 공략할 150만㎡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양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8기 경주시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그간 역사문화도시로만 알려졌던 경주시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단을 보유하게 돼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글로벌 원전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소형모듈원자로(SMR)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는 300MW이하의 발전용량으로 기존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 원자로로 수소생산, 해양,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초기 투자비가 적고 건설 기간이 짧아 자금회수도 빠르며, 기술발전이 따라 경량화와 발전용량 증가도 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착공한 문무대양과학연구소는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목표로 조성했으며, 시는 이를 실현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SMR 국가산업단지 차세대 원전의 주요 부품과 기기 모듈의 생산 시설로 많은 고용창출을 통한 실질적 경제효과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산업단지 유치를 선택한 것이다.

▲225개 기업 입주수요 확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평가, 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신규 국가산업단지 평가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 알려진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 전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225개 기업에 275만㎡의 입주수요 면적을 확보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원 등 4개 기관과 차세대 발전 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 기술' 업무협약, 10월에는 포항공과대학교 및 한수원 등 6개 기관과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협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 올해 2월에는 대형해운사 HMM, 장금상선 등 9개 기관과 '원자력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SMR 시장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무대양과학연구소와 연계 SMR 핵심 기술개발·수출 교두보 확보

경주시 문무대양면 동경주 IC 부근 일원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2030년까지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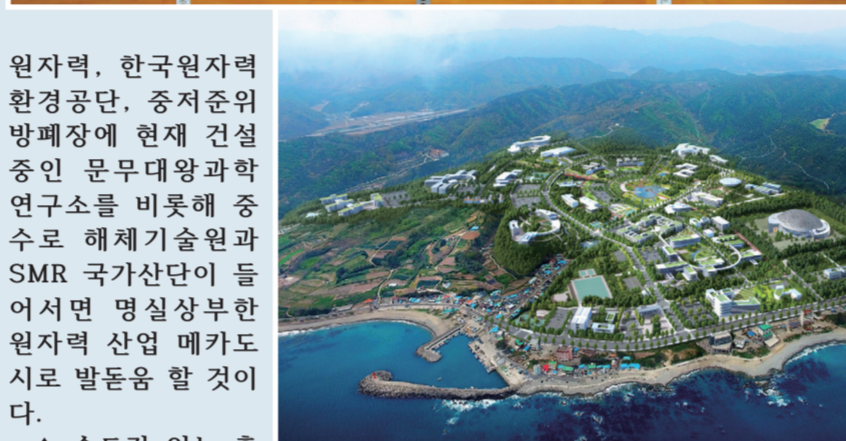
시는 SMR 연구개발 및 생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통합형 제조와 미래 혁신원자력산업 플랫폼을 차별화해 산업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무대양과학연구소의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과 연계해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단지에는 원자력·전력산업, 원전해체, 연구개발서비스 등 핵심 23개 업종과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설비 등 연관 29개 업종이 입주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최근 경주시의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MR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

발효과 73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원, 취업유발효과 5399명이다. 산단 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7357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 2779명에 달한다.

이제 경주는 6기의 원전,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에 현재 건설 중인 문무대양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중수로 해체기술원과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원자력 산업 메카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다.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로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

국가산단 지정과 가동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지정과 가동까지 시간을 당겨야 한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시는 올 상반기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한 후 내년도 상반기 까지 예비타당성 신청을 비롯해



이것은 기업들의 입주 완료율을 포함한 총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나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최단 기간에 완료해 조기 조성하겠다는 각

오다. 특히 입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형 자립고 유지, 안락한 주거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 주영장은 "SMR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킬 구원투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후속조치 쟁점

- 권기창 시장 "신규 국가산단 기입유치 최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총력"
- 사업시행자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 예정
- 파격적인 기입유치 전략 '눈길'취등록세 50% 감면, 분양가 70만원/평 결정
- 세계 바이오 산업 시장 성장세 덩고,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거점 단지 조성
- '생산유발 효과는 8조 원, 고용창출은 3만여 명'에 이를 것

안동시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에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신규 산단 조성 로드맵을 공유했다. 5일에는 국토연구원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후보지별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를 협의·선정하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게 될 예정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서안동 IC와 연결하고 국도35호선과 인접한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132만㎡(약40만평) 부지에 조성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백신은 의약품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의 필수산업 영역에 자리매김했다. 시는 안동에 구축

된 바이오·백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의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거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핵심업종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조, 의료용 화학물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연구개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연관업종으로 헵프(HEMP)를 기반으로 한 특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식품과 헬스케어 등을 육성한다.

안동 국가산단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 산단 조성 완료 시점에는 70여 개의 입주업체가 4조 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8조 원, 고용창출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백신 및 헵프(HEMP) 시장이 매년 20%대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를 주요 핵심 산업군으로 하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 단지의 발

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또한, 안동에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과 주요 앵커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입주해 있고 지역 3개 대학에 바이오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어 높은 산학연관의 집적도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았다.

앞으로 안동은 기업지원 및 유치전략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대한 지원, 분양가를 평당 70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조성 원가 대비 차액 부분은 안동시가 부담해,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헵프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또한,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기업 니즈를 통한 중간지원센터 유치로 바이오 산업 분야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세계적인 첨단바이오 국가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 정부 지방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다해 국가산단 추진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기업들의 입주 완료율을 포함한 총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나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최단 기간에 완료해 조기 조성하겠다는 각

오다. 특히 입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형 자립고 유지, 안락한 주거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광주광역시 청년공동체, 지역 활기 불어넣는다 시, 8개팀 800만원씩 지원...과업수행·네트워크 구축

광주 청년공동체 8곳이 지역 문화·복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20일부터 2월14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했다. 이번 사업에 총 29개 공동체가 참가해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팀(61명)이 선정됐다.

8개 청년공동체는 ▲'무장애 여행코스 연구', ▲'무등산 분청사기 탐구',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책 출판', ▲'디자인 낙후기업 대상 업 디자인 프로젝트' 등 문화분야 4개 사업

▲'지역 청년 단원 모집·연극공연 멘토링',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등 공연분야 2개 사업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관계망 구축' 복지분야 1개 사업 ▲'각계각층 청년 인터뷰 영상 제작' 등 참여분야 1개 사업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공동체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의 과업 수행비 800만원과 활동에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상을 수상한 완도군 청년공동체 '완망진창'팀이 참석, 자신들의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하는 등 광주시 청년공동체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지역 공익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청년들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와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전남도, 2023 김대중평화회의 성공 개최 본격 돌입

3일 조직위서 정신 계승위한 품격있는 국제행사 방향 논의

전라남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한 2023 김대중평화회의를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대중평화회의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등 외교,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김대중평화회의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내외 연사 섭외, 문화행사, 홍보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평화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평화회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계적 여론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초청해 회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해 엠지(MZ) 세대부터 노령 층까지 전 세대가 즐기고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2021년 시작한 평화회의가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 열리는 '제2회 평화회의'는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힘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3 김대중평화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해 행사는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을 주제로(잠정)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시와 신안군 일원에서 노

벨평화상 수상자와 국내외 평화 지도자, 학계, 도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가운데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문화행사, 청년행사, 학술행사로 구성된다. 그 중 학술행사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기후·질병위기 해결 ▲4차 산업혁명과 인류미래 ▲신냉전과 지구평화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나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김병수/기자

순천시,尹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원 환영...애니메이션 산업 날개 달아

윤 대통령,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순천의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 챙겨라 지시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겨주세요"

지난달 31일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순천시민에게 전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삼일 만인 지난 2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적은 예산으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풀어 내기 어려우니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이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콘텐츠정책국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했으나, 순천시도 주무부서를 정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일 순천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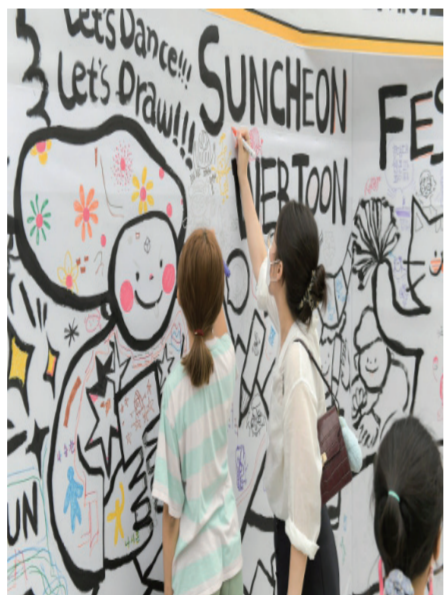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가 지원은 개막식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만찬에서 노관규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순천의 현안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노 시장은 "순천에는 웹툰 관련 대학교가 3개가 있으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수 인력이 지

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의 비어 있는 공간을 수도권 기업들로 채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기존 300억원의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의 확고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편, 순천시는 경기도 부천시의 웹툰산업과 차별화 전략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게 정원산업과도 연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수/기자



구례군, 전국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선포식 개최

"경제를 살리자고? 그럼 자연을 살려야지!"

전남 구례군은 오는 4월 7일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탄소 절감과 생태 농업의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연생태지역인 전남 구례군이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흙을 살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생태농업경제,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서삼석 위원장과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에서 청소년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 낭독과,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을 발표한다.

군에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생명을 살리는 흙의 소중함과 미래 농업농촌 교육 ▲흙 살리기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 ▲ 흙 살리기 발전계획 수립과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흙 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영위하는 새로운 생태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남원시, 4월 '과학의 달' 맞아 다양한 과학체험행사 마련

항공우주전문대 1박2일 가족캠프, 어린이과학체험관 개관

남원시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코로나로 주춤했던 남원항공우주전문대 1박 2일 가족캠프를 다시 운영하고,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개관 할 계획이다.

남원항공우주전문대가 추진하는 1박 2일 가족캠프는 가족, 연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원시와 연계된 숙박시설인 함파우소리체험관 한옥숙박동과 남원에촌 한옥숙박동 이용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1박 2일 동안 천문학 전공자의 1:1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천체망원경 관측도 일반관광객의 관측 시간과는 별도로 운영해 천체관측의 깊이를 더욱 느낄 수 있다.

한편, 어린이과학체험관은 국내 지자체 과학관에는 처음으로 자격루를 설치한 시설로 광한루원 경의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4월에 정식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체험관은 1관 해시계전시관, 2관 물시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과학을 기반으로 양부리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 등의 작동체험시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설치된 자격루는 어린이과학체험관 대표 작동체험 시설로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물과 약 70%에 가까운 모형으로 제작하였으



며 과학해설사가 직접 자격루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람객들은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는 작동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천문대와 광한루원 VR체험 창에는 프로그램 대기시간 및 여유시간에 관람객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바리스타 로봇이 상시 대기중으로, 로봇이 커피 3종, 주스 2종,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미래산업의 로봇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흥

미로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문화와 예술의 고장에서 만난 과학체험을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남원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063-620-898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정광남/기자

'나주 9경' 관광객에 묻는다... 나주시, 대표 관광명소 온라인 설문

500만 나주관광시대 견인할 대표 관광명소 육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500만 관광 시대 구현의 첫 단계로 대표 관광명소 '나주 9경'을 선정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 선정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주 9경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 자문 및 2022년도 한국관광데이터랩 나주시 인기 관광지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반남고분군, 4대문·금성관·나주향교·나주목사내아가 위치한 나주읍성, 영산강 등대와 황포돛배, 영산포 근대유산, 나주영상테마파크, 도래 한옥마을, 불회사 등 2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나주의 역사문화 관광명소가 후보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금성산, 나주호, 산림자원연구소

(빛가람 치유의 숲), 동강 느리지전망대, 한수제·백룡제·태평사 벚꽃길, 영산강 유계꽃밭, 우습제 흥련, 나주평야(다시들녘), 드들강 솔밭 유원지, 불회사 비자나무 숲, 나주배꽃들, 가야산·일봉암 일출 등 천혜 경관을 자랑하는 생태 관광자원도 두루 포함됐다.

설문 참여는 나주관광 누리집 팝업창에 게시된 사이트 링크 접속 또는 QR코드(사진) 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최대 5곳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주관식 설문을 통해 후보지에는 없는 숨겨진 관광명소도 추천받는다.

조사 결과는 이번 달 최종 선정될 예정인 나주9경 최종 평가·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나주관광 기념품(20명), 커피 쿠폰(30명)을 증정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에 대한 시민과 전국 관광객의 취향과 눈높이를 파악하고자 진행되는 설문"이라며 "조사 결과를 나주 9경 선

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견인할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전남도,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머리 맞대

지방공공요금 동결·인상 연기...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키로

전라남도는 2021년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연기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홍철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송재원 통계청 목포사무소장, 박난숙 한국소비자연맹 전남지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목포·순천·광양상공회의소 등 도내 물가 관련 기관·단체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17.3%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근 2년간 8.4% 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경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

해 1~2월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2%포인트나 상승해 2021년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물가인상 체감이 높은 지방공공요금을 정부 기조에 맞춰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안정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은 도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통해 담합과 같은 불공정 상거래 행위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참석 위원들은 당분간 물가 상승 지속이 전망됨에 따라 도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물가 조사 활동과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 등 도민 홍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환 부지사는 "물가 상승이 도민 소비 지출과 소상공인 제품 원가



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군, 유관 기관과 함께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 지방물가 안정화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명/기자

영광군, 민선8기 새로운 도약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영광군은 지난 31일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윤석열 정부정책, 공모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실현가능한 미래 전략사업을 발굴하려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의회의원과 실과소장 그리고 자문위원 장석주 호남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재)광주전남연구원 박

영희 정책지원단장은 5개 분야 27개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에서 전문가 설문 및 심층 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강종만 군수는 "오늘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사업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각 분야별 의견수렴에 다수의 전문가들께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순/기자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살고 싶은 군산 만들기!!

군산시가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살고 싶은 군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인구위기 지역소멸을 극복을 위한 『2023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오는 28일까지 26일간 접수하며, 생활인구를 포함하여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양육, 교육,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등 생애전주기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이메일 또는 우편(군산시 시청로 17, 5층 기획예산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5명)의 시상금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살고 싶은 군산만들기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체감의 열린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태/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소문내기' 이벤트 실시

모바일 커피 쿠폰 100명 추첨...16일까지

진도군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SNS 소문내기 이벤트는 4월 20일부터 진도군에서 개최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이벤트 게시글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진도군 공식 SNS를 구독·캡처하고 네이버폼에 인증 캡처와 공유 URL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 진도군 공식 SNS에서 실시하며, 경품은 개별 발송한다.

윤경호/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바닷길 만남 한마당 ▲소망의 조약돌 바닷길 체험 ▲EDM 올라잇 스탠드 쇼 등 총 70여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닷길 체험과 찬란한 진도 민속 문화가 함께 어우러 지는 관광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도군, 제62회 전남체전 축구 더 재밌게 관람하는 법

그라운드 위 폭풍 질주! 축구 경기 규칙·관전 포인트 안내

200만 전남도민 화합의 스포츠 축제인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완도에서 펼쳐진다.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군민과 관람객 등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종목별 경기 규칙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다.

축구는 11명씩 한 팀을 이루어 두 팀이 경기하며, 전·후반 각각 45분씩 총 90분 동안 손과 팔을 공에 대지 않고 주로 발을 이용해 축구공을 상대 골대에 넣어 점수를 얻고, 승무패를 가린다.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축구 경기

는 5월 13일(토)부터 15일(월)까지 3일간 축구전용구장, 해신축구장, 고금생활체육공원에서 예선과 준결승, 완도공설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감독, 코치 외 선수 20명 이내로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 자격은 전라남도 출신자로서 2023년도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하고 타지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과 고등학교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프로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축구협회에 선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하다.

전남체전은 전·후반 각각 30분씩 총 60분 경기로 중간 휴식은 10분이며, 토너먼트식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무승부 시 예선부터 결승까지 승부

차기를 통해 승자를 결정한다.

지난 2022년 제61회 대회에서는 1위 순천, 2위 강진, 3위 목포, 진도, 2019년 제58회 대회에서는 1위 신안, 2위 여수, 3위 목포, 장성이 차지했다.

2023년 제62회 대회에서는 전통 강호 순천, 목포, 신안의 치열한 우승 경쟁과 완도, 강진, 해남 등 중상위권의 상위권 진입 또한 불만한 관전 포인트다.

개최지 완도군은 많은 선수층에 비해 매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으며 2019년 제58회에는 8강에서 아쉽게 패하며 5위에 그쳤지만 개최지 이점을 살려 상위권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양영욱/기자

- 2023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 -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살고 싶은 군산 만들기.

해남군,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5만원 내면 50만원 상당 남도장터 이용 포인트 지급, 150명 대상

해남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에게 연 50만원 상당(개인부담 50%)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향우들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 1순위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거주 향우이며, 2순위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이다. 단, 전남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는 제외된다. 1순위 대상자 미달시, 2순위에서 모집 선정이 가능하다. 총 150명을 선정한다.

윤선애/기자

최종 대상으로 확정되면 남도장터 홈페이지에서 자부담 25만원을 낸 후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12월 15일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출신지 읍·면사무소에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자 선정 과정 중 향우 입증을 위해 읍면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열람 동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고향에 대한 애항심을 고취하고 친환경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 "혁신을 위한 MZ공직자들의 발칙한 동행"

영암군은 지난 28일 군청 낭산실에서 '제2기 영암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군 혁신을 위한 젊은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장원 부군수가 함께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각 분임별 소개, 연중 운영 방식 안내와 함께 참석자들이 혁신응원 메시지를 서로 나누며 혁신의 의지를 다졌다.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는 유연하고 열린 시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문화 속 무의식적 편견이나 비효율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자 구성원 '젊은'의 힘으로, 군은 지난해 1기에 이어 올해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며 긍정전반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2기 영암군 혁신 주니어보드'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조직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특히, 이번 활동 중에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과는 반대로 주니어직원이 시니어직원의 멘토가 되어 리더조직의 가치관과 트렌드를 환기하는 '리버스멘토링'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내면 군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혁신은 가까운 것에서부터 작게 시작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직원들의 '혁신을 위한 젊은 생각'이 군에서 전방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조직 문화·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영암군은 최근 급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와 트렌드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 주니어보드 외에도 혁신시책 발굴, 혁신 정책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2곳 영업정지

국토부-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특별점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 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경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031-8008-2580)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로 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부산시, 청명·한식 기간 산불예방 총력... 위반 행위자 처벌 강화

청명·한식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불꽃쇼 기간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부산시는 청명·식목일(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청명·한식과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 행사로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요인이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며, 자치구·군과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모처 주변, 사찰, 무속행위지 등 산불취약지에 대해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임차행기 활용 산불예방 홍보

활동 등도 병행하며 산불발생 원인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에 대응하기 위해 불꽃쇼 관람이 가능한 주요 산에 3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불꽃쇼 관람과 산불 예방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에게 홍보 및 제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불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등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 관람객과 청명·한식 기간 상춘객 등으로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

람이 많이 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 흡연, 취사, 불법소각 등을 절대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종진기자

인천시, 담배 연기 없는 인천 위해 금연 구역 84,825개소 일제 점검

16일까지 간접흡연 예방 위한 금연 구역 일제 점검 실시

인천시가 담배 연기 없는 인천 만들기 나섰다.

인천광역시시는 확대된 금연 구역의 조기 정착 및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금연 대상 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시내 금연 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72,821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횡단보도·하천보행로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 구역 12,004개소 등 모두 84,825개소이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기간 동안 시·군·구 공무원 및 금연 단속 인력 등 총 98명으로 구성된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점검 및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민원이 잦은 공원,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등 총 100개소에 설치된 금연벨을 재정비하고,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간접흡연 피해가 큰 공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등의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연 구역 관리·홍보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



리·홍보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

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 및 금연 캠프 관련 사항은 인천금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화성시,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화성시가 3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시 경제정책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 단속으로 오는 28일까지 총 26일간 실시된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건전한 지역화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의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양시현기자

광주 서구, 노후 공동주택 특별 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각지대 노후 공동주택 안전성 확보

광주광역시 서구는 3일부터 7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설물안전법 등에 의한 법정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년이상 경과한 3층이하의 연립주택 11개소다.

서구는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민간 전문가 1명, 관련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건물 주변의 지반침하 및 균열, 기울임, 구조부재의 처짐 또는 단면손실, 철근부식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부소방서와 협업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서구는 점검결과 노후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통

보하고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토대로 안전사각지대의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2023 청산도 슬로시티축제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

2023년 4월 8일(토) ~ 5월 7일(일)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슬로시티축제추진위원회

2023 완도 정향고수산물축제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

2023. 5. 4(목) ~ 5. 7(일)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장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강원도 갯성비 착한가격업소, '물가, 내수' 두마리 토끼 잡는다!

지원개소 확대 및 이용활성화 이벤트 추진!

강원도가 불맛이 내수진작과 개인 서비스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 숨어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금년까지 6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3월 17일까지 428개소가 지정됐으며, 일부 시군에서 신규업소를 추가 모집 예정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원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착한배달앱 '일단시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착한가격업소 리스트는 도·시군 홈페이지와 강원물가정보망, '일단시커'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시커' SNS와 블로그에 업로드

된 QR코드를 찍으면 네이버폼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배달앱 쿠폰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 이벤트다.

또한,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군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고 강원도 관광지도 내 QR코드를 표시할 계획이다.

남진우 경제정책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비자들을 착한소비를 유인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물가지킴이"라며,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대표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선출

아산시, 자치분권어워드 캠퍼스 부문 특별상 수상

박경귀 아산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으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뽑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창립된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로, 전국 30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박경귀 시장은 "오늘날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진보와 보수,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지방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전문 위원회 구성, 입법 청원 등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노력하려는 협의체 차원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와 같은 중부권 도시

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직결된 여러 문제가 있고, 비수도권 도시들은 모두 지방소멸 위기라는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지방정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아산시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특례 지정 신청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을 건의하고, 25일 앞으로 다가온 제62회 성웅이순신 축제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아산시는 자치분권어워드 캠퍼스 부문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성공적인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 자치분권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도시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권한과 주민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청주공예비엔날레, 초대국가 스페인의 이름으로 손미나와 만났다

4일 오후 2시, 동부창고 38동서 홍보대사 위촉 및 북토크 진행

스페인(通)으로 유명한 아나운서이자 여행 작가 손미나가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합류했다.

청주시와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하 비엔날레)는 개막 D-150을 맞은 4일 오후 2시 동부창고 38동에서 비엔날레 다섯 번째 홍보대사로 손미나를 위촉하고 연계 행사로 북토크를 진행했다.

청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홍보대사 손미나는 아나운서이자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로 2006년 스페인 문화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민간 문화가교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올 3월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에게 시민십자훈장을 받았다.

스페인에서의 유학 생활을 담은 '스페인, 너는 자유다'를 통해 30만 독자들의 사랑을 얻은 이후 여행 작가이자 방송인, 알맹 드 보통의 인생학교 교장 등 다양한 수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는, 최근 800km에 달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과정을 담은 여행다큐멘터리 '엘 카미노'를 개봉하며 영화감독의 타이틀까지 추가했다.

또한 순례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과 생각, 스페인의 광활한 자연을 갈무리한 신간 '팬텀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거야'도 동시 발간하며 스페인과 독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엔날레의 올해 초대국가인 스페인을 대표



하는 홍보대사로 합류하게 된 손미나 씨는 스페인통담계 초대국가와 비엔날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행될 스페인 문화주간에 특별 강연으로 대중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위촉식에 이은 이날 북토크에서 홍보대사 손미나 씨는 "피레네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들어가 나바라, 리오하, 카스티야 이 레온을 거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기까지 험난한 여정 동안 인생의 질문과 해답, 위로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인생이란 길 위에서 흔들리고 지친 이들에게 오늘 전하는 따

뜻한 응원이 힘이 되길, 그 힘을 발견한 스페인의 매력에 청주시민과 비엔날레 관람객들에게도 닿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랜 시간 한국과 스페인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담당하며 누구보다 스페인을 잘 알고 이해하는 손미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공예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건축, 음식, 영화, 춤 등 우리가 몰랐던 스페인의 문화를 만나게 될 이번 비엔날레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절골교 교량개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태백시는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재해위험교량인 절골교 개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986년 완공된 '절골교'는 37년간 태백시 삼수동 5동과 6동을 연결하는 중요 교량이나 교량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교량 안전점검 결과 개축이 필요한 B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시는 2023년 4월부터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난안전교부세 3.5억 등 사업비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2.1m, 폭 9.0m 규모로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3월 21일 해빙기 공사 해제와 재착공했으며, 3월 24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의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8월 말까지 개축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절골교 개축공사가 완공되면 폭이 협소했던 교량이 확장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량 개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단양군,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충북 단양군은 비상대비 민방위 활동 진흥 유공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비상대비 및 민방위 활동 유공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상대비 민방위 분야에서 헌신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 심사 평가해 수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적극 홍보,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 실행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선정됐다.

군은 신규편성 대상자, 편성 제외자, 자격 면허 소지자 등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 현재 23년 1월 말 기준 58개대 1,112명 민방위대를 편성해 관리중이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을 이장회의,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에 적극 홍보해 99.13%의 높은 교육 이

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렇게 높은 교육 이수율 달성에는 군 담당자가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수립하는 등 교육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쓴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노후된 경보시설 2개소를 교체하고 대피시설 1개소 추가 지정, 급수시설, 민방위 창고 등 민방위 시설 관리도 매월, 수시 점검해 비상사태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방위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 매분기 수질검사를 직접 의뢰하고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등 모든 시설이 제 기능이 유지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대비 상황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단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30음성시 건설, 4+1 신성장산업 로드맵 추진

음성군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4+1 신성장산업(△에너지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헬스케어 + △기후 대응농업)' 육성에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헬스케어(T:Trendy Healthcare) 산업은 소득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어 군은 국립소방병원 및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헬스 산업을,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케어 산업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차 있다.

군은 1조2707억원의 대내외 투자를 통해 K-바이오헬스산업, K-뷰티산업을 선도하고 군민에 대한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튼튼한 체력을 길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산업 기반 조성 △헬스케어산업 육성 지원 △첨단소방헬스케어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했다.

헬스케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맹동면에 조성 중인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을 헬스케어 특화 산단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충청북도와 협업하여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마케팅,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헬스케어산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주시 오창읍에 구축되는 방사광 가속기도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큰 역

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자, 원자 단위까지 구조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제품 개발과 시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지리적 근접성은 관련기업의 유치와 집적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미 190여개의 바이오, 헬스, 화장품 관련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연구개발, 제품사업화, 핵심장비 등의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헬스케어산업 기업체 협의회와 극동대 산학협력단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에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소방산업 시장이 수동적 방화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복합 재난 스마트 예측, 재난현장 소방 구조 시스템화 등 능동적 방화 시장으로 진화하면서 블루오션 사업으로 급성장 이 예상되는 만큼 국립소방병원(2025년 준공 예정)과 연계한 첨단소방헬스케어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산업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강소기업 육성 등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소방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장애 완화와 심신치료를 위한 소방치유힐링센터를 건립해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복합치료 기반을 마련해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조병욱 군수는 "이밖에도 메디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해 치유·힐링(건강)교육 삼박자를 갖춘 헬스&뷰티 케어 도시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원주시 '꽃가루은행' 이용하시고, 맛 좋고 이쁜 과일 생산하세요!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개화기 기상 이변에 따른 과수 결실을 저하 및 정형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5월 6일까지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

맛 좋고 모양이 예쁜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분·수정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불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화분매개곤충의 감소와 꽃눈 냉해 피해로 정상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꽃이 빨리 피기 시작한 해에는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저

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벌, 나비 등 화분매개곤충의 활동이 저조할 것에 대비해 인공수분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센터는 이 같은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 꽃가루 생산과 더불어 인공수분에 필요한 꽃가루 증량제 및 인공수분 장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개화기 기상 이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4월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화창한 봄, 식목일 맞아 경기도 배달특급 대형 할인 이벤트 진행!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4월 5일~7일 5천 원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식목일을 맞아 즐거운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5일 식목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최소 주문 금액 23,000원 이상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특급 회원이라면 누구나 앱 내 상단 배너 게시물을 통해 해당 이벤트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식목일은 소비자 혜택을 더욱 넓히기 위해 배달특급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노출될 쿠폰 코드를 배달특급 앱에서 입력하면 더하기 1천 원·2천 원 쿠폰 2장을 받

급받을 수 있다. 쿠폰 코드를 확인한 소비자는 배달특급 앱 내 오른쪽 아래 끝 '더보기' 탭에서 쿠폰 메뉴로 들어가 입력해 사용할 수 있다. '더하기 쿠폰'은 다른 기존 할인 쿠폰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식목일 이벤트는 새순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여 도민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더하기 쿠폰까지 함께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더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조혜영/기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태안군 선정...4년간 20억 원 투입

충남도는 태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억 원(국비·지방비)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 음식, 쇼핑 등의 관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태안군과 울산시 2곳이 선정됐다.

태안군은 '팻니스 태안 건강하게,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연간 5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수용태세 확충, 홍보 마케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해변 요가, 반려견 운동회, 온라인 플랫폼 구

축, 반려동물 여가 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전문인력 육성, 홍보 영상 제작 등이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연간 약 1조 39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태안군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은 계기로 사업실적, 제약요인, 사업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도 전체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는 반려동물 친화여행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교통·숙박 등 관광수용력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민간 주민 협력체계 및 전담 기구 운영,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최정근/기자



스마트농기계 한자리에! 상주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 국내 농기자재 산업 활성화와 수출 기반 조성 마련 - 자율주행 농기계 등 400여 기종 전시, 농업 스마트화 박차

경북도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상주 태평성대 경감감영공원 일원에서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후원하고 상주시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는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4일 개막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식품부 혁신정책관, 산업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경북도의원, 상주시장,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감감영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8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만3300㎡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에 국내 농기계업체 240개사가 참가해 400여 기종의 다양한 농기계를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최근 변화된 농기계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율주행 및 친환경 농기계, 스마트 ICT 시설기자재를 비롯한 농용 로봇 등을 중점 전시하고 국내외 최첨단 농기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수, 경운·정지, 농산가공, 수확용, 이앙·정식·파종, 임업, 재배관리, 축산 등 농기자재도 전시해 지역 농

업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기자재를 박람회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행사로 는 시설원에 스마트팜 수출활성화 정책 세미나, 농기계 연구개발 동향 세미나, 가상 농기계 체험, 승마로봇체험, 농기계 연시장, 참관객 경품지원 행사 등이 운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최대 농기계 관련 행사인 2023 상주농업기계박람회가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도 스마트 농기계 보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농업이 첨단·디지털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삼성전자, 'B2B 고객 전용 e스토어' 전 세계 30개국으로 확대

삼성전자가 해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체의 제품 구매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한 'B2B 고객 전용 e스토어' 서비스를 독일에서 3일(현지시간) 신규로 개시하며, 대상 국가를 총 30개국으로 확대했다.

삼성 B2B 고객 전용 e스토어는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안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까지 제공하는 삼성닷컴 내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2021년 10월 미국·영국·프랑스·호주·튀르키예 등 5개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중동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비스를 구축한 지 1년 6개월 만에 30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할부·인보이스 거래 등 결제 옵션을 다양화하고 기업 전용 할인과 구매 금액 기반 할인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제품에 맞는 기술 지원도 이루어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판매 제품도 TV·모니터·에어컨·냉장고 등에서 노트북·태블릿·휴대폰 등 모바일 제품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삼성 B2B 고객 전용 e스토어는 ▲



▲ 'B2B 고객 전용 e스토어' 활용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페쇄형이 아닌 오픈형으로 접근성이 좋고 ▲담당자를 직접 연결하는 과정 없이 온라인 상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간결한 프로세스 ▲중소기업에 특화된 결제 수단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B2B 고객 전용 e스토어의 매출은 지속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지난해 2월 말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이 서비스를 통한 1~2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실장 김민식(김민식)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B2B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삼성 B2B 고객 전용 e스토어의 경쟁력을 B2C 수준으로 높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국내 1위 비건 푸드테크 기업 넘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지원 할것"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입주기업 휴밀, 중기부 '팁스' 선정 쾌거

향후 2년간 5억원 연구개발 자금 확보...식물성 분유 제품군 확대 예정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진흥원이 발굴하고 육성한 (주)휴밀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예비창업자로 인연이 시작된 휴밀은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영업 첫째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상승가도를 달리며 성장했고 씨엔티테크와 시리즈벤처스, 엔젤매칭펀드로부터 6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휴밀은 이번 팁스선정을 통해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됐으며 향후 사업화 자금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휴밀은 이를 통해 핵심 보유 기술 초단축 공정을 이용한 식물성 분유 '오트 밀크 파우더' 기술을 개발해 기존 상용화 원료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식물성 분유 제품군을 확대해 향후 동물성 분유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밀은 김경환 대표의 '건강한 원료를 개발하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현재 '분말두유 제조기

술을 활용한 간편대용식'을 개발하는 식품기업이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비건' 시장에서 유제품을 대체하는 원료인 식물성 분유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기존에 타업체가 액상화 과정을 거쳐 분말로 만들었다면 휴밀은 특허받은 분말 두유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맛과 영양은 똑같지만 제조공정은 줄여 가격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롯데백화점 입점,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 제조 기업들과 협업 및 납품, 일본·호주 수출 진행에 이어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수출 문이 지속되는 등 '비건 간편대용식'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경환 대표는 "휴밀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진흥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비건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셰이크, 비건 소스 등 제품군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브랜드를 널리 알려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박성호 진흥원장은 "휴밀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흥원이 발굴하고 육성한 대표적인 지역 내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번 선정은 지역 내 많은 스타트업에 귀감이 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휴밀이 김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진흥원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육성하는 기술창업육성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망한 창업기업에 민간 투자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하여 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경남도, 4월의 '성과 우수공무원' 시상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한 3명 선발·포상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일 오전 개최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3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은 도민 제감 성과 향상을 위해 내·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도지사 표창과 성과급 우대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다. 4월의 성과 우수공무원은 3명이다. 교육담당관 배기나 주무관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글로벌대학 육성 기회마련 등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에너지산업과 박미정 사무관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전국 도 단위 2위 달성,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및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납부유예 추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도로과 김선주 사무관은 대통령·도지사 공약사업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U자형 국가지도망 건설 계획 추진,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사업 시행 등으로 도민 불편 해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한 김선주 사무관은 "대통령·도지사 대규모 공약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성과는 모두 함께 노력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교통수요와 여건 변화에 효과적인 도로망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도민 불편해소와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재현/기자

사천 관내 단감과 새송이버섯 등 2개 농가 수출탑 수상

사천시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분야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수출의 역군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천시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수산물 분야 5개, 농산물 분야 2개 등 모두 7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총 5개 업체가 수상을 했는데, 향촌동에 소재한 '가림씨푸드'가 수산물 100만 불탑을 수상했다. 가림씨푸드는 2020년부터 향촌삼재농공단에 입주해 피조개 가공업을 영위해 온 업체로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피조개 약 165톤을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수산물 생산, 가공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개척과 품질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사업에 약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관내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조한나 농가가 10만불,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구철서 농가가 50만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했다.



구철서 씨는 사천에서 새송이버섯을 재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10만불, 2018년 3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5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1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조한나 농가는 고품질 사천단감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사천농협동조합 김성원 판매과장은 농식품 수출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김 과장은 2022년도에 사천농협 단감수출농단을 경상남도 최우수 수출농단으로 육성하는 등 사천시 농산물 전반에 대한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시장 대응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한편,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은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 고취 및 수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내수시장 안정과 함께 농수산물 업체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안양시, 자치분권대학 캠퍼스 부문 특별상 수상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3일 2023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안양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치분권대학에서 캠퍼스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자치분권대학 연구교육원 발대식 및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서울 은평구, 광명, 아산 등의 협의회 위원 및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그간 자치분권대학의 개최 및 활동 등에 대한 공로로 캠퍼스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협의회는 이날 시민, 학자, 지방정부와 국가가 함께하는 통합플랫폼인 자치분권대학 연구교육원과 전문위원회회를 조직했다. 전문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등 학계와 일반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각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설기구인 자치입법



원을 조직해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연구교육원에서 발굴한 지역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기적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치분권대학을 수료한 안양시민 6명을 자치분권대학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시장은 "기존 기구들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조직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의회는 노력이 주민자치와 지방혁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회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신우용/기자

태백시-국학자료원 도서 기증식 및 감사패 수여식 가져

국학자료원 정찬용 원장, 태백시에 도서 1,000권 기증

태백시는 도서출판 국학자료원으로 부터 도서 1,000권을 기증받고 지난 31일 기증식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정찬용 국학자료원장은 기증식에서 "태백시민들에게 폭넓은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서출판 국학자료원은 1976년 한국학의 전통을 계승하며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지켜가고자 설립했다. 출판보유종수는 5,200여 종, 전자책 보유종수는 13,000여 종으로 문학, 역사, 국어학, 서지학, 민속, 영화, 예술, 한국학 중심 분야를 출판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도서기증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국학자료원과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해준 우정식 상임 고문과 좋은 책을 기증해주신



정찬용 원장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받은 책은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자산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기증도서는 인문·교양도서로 시립도서관 산소드림도서관 자료실 기증도서 코너에 비치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2023년 제 3회 세계참인재사회혁신대상(행정자치부문)을 수상했다. 유상근/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꽃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estival

장흥군 Jangheung County
9월 9일 9월 [장흥 대표 볼거리·먹거리·살거리]
9월 장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 관백송 우드랜드, 장남진 정충로시장, 보행사, 천관산, 소등산, 재암산, 선학동마을, 탐진강, 장남진 전망대
9월 꼭 먹어야 할 장흥 별미: 장흥삼합(한우+표고버섯+키조개), 매생이탕, 원정물회, 하모사부사부, 키조개요리, 갑오징어 회·막걸, 황실떡볶이,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9월 자연이 선사한 특별한 선물: 표고버섯, 맛게, 무신김, 친환경(아보이), 형태진, 황실, 매생이, 한우&육포, 녹차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협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용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순법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에 걸맞은 가격, 농민을 경영의 길로, 농·축산물 유통 대변" (농민은 유통위원회, 순법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에 걸맞은 가격, 농민을 경영의 길로, 농·축산물 유통 대변)
디지털 혁신: "농업인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인 편의 증진, 농업인 복지 증진" (농업인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인 편의 증진, 농업인 복지 증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성장을 촉진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성장을 촉진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

“제8회 사천비토섬 별주부전축제”성공적 마무리

비토 벚꽃길에서 토끼와 거북, 그리고 용왕을 만나다 테마



별주부전의 본고장 사천시 서포면 비토섬에서 열린 ‘제8회 사천비토섬 별주부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진행된 축제기간 동안 2000명 이상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즐기는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아름다운 서포바다의 절경과 어우러진 벚꽃이 만발한 시기에 열려 화사로운 봄날의 축제로서 낭만의 봄의 풍취를 즐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행사 일정을 4개월 정도 앞당겼다.

또한, 개막식 축하행사 때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는 환상적이었으며, 63명이 참가한 제1회 비토섬축

제노래자랑은 축제 열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특히, 별주부전의 테마에 맞는 수궁가 경연, 연극, 사생대회 등 비토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테마는 경쟁력 높은 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한편, 올해는 제1회 비토섬별주부전가요제, 용왕제, 수궁가, 사물놀이, 청소년페스티벌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비토섬별주부전축제를 해양관광도시에 걸맞은 품격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힐링하고 체류하는 명품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내년 대구국제마라톤, 세계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

‘대구국제마라톤’, 보스턴마라톤 대회를 능가하는 대회로 준비 주문

홍준표 대구광역시는 4월 3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보스턴마라톤대회를 능가하는 국제대회로 상향시켜 대구를 세계에 알릴 최고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결과보고 후 “내년부터는 대구국제마라톤을 보스턴마라톤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마라톤 축제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임을 강조하며 “도시의 품격을 올리고 도시브랜드의 세일즈 기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정은 5월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연계해 축제 마지막 날에 개

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코스도 대구스타디움을 출발점으로 대구시 전역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상화로입체화사업이 코오롱글로벌(주)와 당초 협약대로 하도급공사를 전액 지역업체가 수급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한 부서를 격려하며 “협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롯데를 공사자연과 같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수단을 사전에 준비해서 대처하라”라며,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상응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에는 최근 문제가 된 10대 학생환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응

급의료체계 공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 조치 외에도 강력한 행정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테라루나 폭락사태 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구지역 가상화폐거래소 개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구시에 가상화폐거래소 유치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윤근수/기자

경산시, 2023년 생생문화재사업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는 경산시 생생문화재사업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를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생생문화재사업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국가사적 경산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을 주제로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 콘텐츠를 융복합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압량 문화 탐방대 압독과 임당유적’을 시작으로 대표 프로그램인 ‘도전! 압독국 마인크래프트로 상상하기’(6월~7월, 총 4회)를 운영하고, 새로 신설된 지역민과 함께하는 고분 축제인 ‘찬란한 압독은 고분 속에 피어나고’(6월 10일)와 ‘증강현실(AR)로 압독유적~’(10월, 총 4회)까지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전! 압독국 마인크래프트로 상상하기’, ‘증강현실(AR)로 압독유적~’ 프로그램은 임당유적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좀 더 깊이 다가가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신설된 ‘찬란한 압독은 고분 속에 피어나고’

프로그램은 상설체험 부스와 야외 공연 및 야외 공연 등으로 구성된 압독국 고분 축제로서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지역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해 2천여 년 전 압독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2025년에 개관할 예정인 국내 유일의 복합유적 전시관인 임당유적전시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경산시가 추진 중인 생생문화재사업은 신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하여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송광삼/기자



‘남도전국가요제’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열린다

4월 28일~29일, 치열한 예선과 본선 예고

화순군이 전남방송과 함께 가왕 선발대회 ‘남도전국가요제’를 화순 고인돌 축제 중에 개최한다.

‘남도전국가요제’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열리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화순 고인돌 축제’와 함께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자는 다수의 인기 가수들과 경연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강원도·수도권·충청권·영남권 등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신청해 풍성한 공연이 기대된다.

‘남도전국가요제’는 화순 고인돌 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며, 4월 28일 예선이 치러지고 29일 본선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뮤지션들의 경연의 장으로 마련된 ‘남도전국가요제’는 ‘미스트롯’보다 앞서서 기성가수와 아마추어의 대결 방식으로 독특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올해로 3회째 접어들면서 최성상의 가요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특히 28일 예선에 참가할 뮤지션 중에도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성가수들이 포함돼 그야말로 기성가수와 아마추어 가수의 본격적인 대결도 기대된다.

본선 축하무대에는 진시몬, 김다나, 손정윤, 양학태, 센컨드, 킹스밴드, 엘리스가 무대를 빛내고, 예선 축하무대에는 고은미, 강동규, 김미연, 박치영, 불태산, 심재필, 유연주, 홍수필 등 지역 뮤지션들이 독특한 창법으로 관광객과 참가자들에게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요제는 전남문화예술총연합회가 주최하며, 대상 시상금도 500만 원으로 높은 참가자들의 많은 참여와 대중문화예술인 발굴도 기대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화순사랑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된다.

남도전국가요제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문화예술총연합회로 연락하면 된다.

박경귀 아산시장, 성웅 이순신 축제 준비와 산불 예방 총력 당부

박경귀 아산시장이 3일 열린 4월 월례 모임에서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준비와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올해는 이순신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범국민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원년”이라면서 “25일 앞으로 다가온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산불 감시로 시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년 만의 개최되는 축제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주말 충남 홍성과 서울 인왕산, 대전 서구 등에서 발생한 산불을 언급하며 “주말마다 공무원들이 산불 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에 추가 비상근무까지 하느라 힘든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소중한 산림 자원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 감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시장은 아산 온천산업 부흥의 주춧돌이 될 행정안전부 주최 온천산업박람회 개최지 선정, 국회에서 진행된 미군 이전 평택지월별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국내 최고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트밸리 아산 포럼 발족식’, 청년의 눈으로 시



정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에서 진행된 ‘공감 Talk’, 대안에서 진행된 2023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 발표자 참석 등 지난 3월 아산시 주요 이슈를 열거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시는 지역발전예에 이바지한 시민 31명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 특히,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위해 폭넓게 활동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범시민 추진단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힘을 모아주시는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해 표창받으신 것”이라면서 “경찰병원 유치는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성과다. 이 자리를 아산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또, 박 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산불 비상근무, 이순신 축제 준비 등 너나없이 고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언제나 아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장흥 하늘빛수목원, 형형색색 ‘튤립축제’ 관광객 북적

4.1. ~ 4.23. ‘제10회 하늘빛수목원 튤립축제’ 개최

장흥군 하늘빛수목원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튤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튤립축제가 한창인 하늘빛수목원은 튤립뿐만 아니라 1000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화사한 봄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원 내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초화류가 어우러져 있다.

수변생태 학습지로 각광을 받아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사계절 가족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늘빛수목원은 약 10만㎡ 규모에 편백숲, 생대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주재용 대표는 “튤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눈부신 봄기운을 떨치고 있다”며 “제10회 튤립 축제에서 행복한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2023 만석거 벚꽃 축제’ 7~8일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수원시를 대표하는 봄꽃 축제 ‘2023 만석거 벚꽃 축제’가 7~8일 이틀간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시 봄 속으로’를 주제로 만석공원 전역에서 펼쳐진다. 만개한 벚꽃과 함께 이틀간 풍성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벚꽃 음악회, 체험코너, 버스킹 음악·마술 공연 등 연령대와 무관하게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대표 프로그램인 벚꽃 음악회는 8일 오후 4시 수원제2야외음악당 무대에서 열린다. 수원시립합창단·재즈밴드·전통민요·대중가수 등 노래 공연, 줄넘기시범단·대학고 치어리딩·청소년 댄스공연 등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가수 박혜경, 여행스케치, 한수영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관심 분야를 둘러보며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 코너는 이틀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여 가지로 운영된다. 인드와·캘리그래피·보자기아트 등 취미 부스부터,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kt위즈·수원FC 등 프로구단, 체성분 분석·치매 관리 등 건강 부스까지 다채롭다.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 잘 관리된 유기견을 현장에서 분양하는 ‘찾아가는 입양센터’, 수원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 교육’, 수원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가 함께하는 환경교실 등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가수 통기타 공연과 마술 공연으로 꾸며지는 버스킹은 이틀간 오후 2~4시 공원 내 2곳에서 열린다. 흐드러진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곳곳에 설치된다. 당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커피 교환권을 보내주는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부대행사로 수원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그림대회, 수원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수원물인협회 시화 전시와 시민 백일장 등이 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의 삶터에서 시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코로나를 지나 4년 만에 되찾은 새봄을 만석공원에서 다 함께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석거 벚꽃 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경기대학교 입구 광고공원에서 열려온 ‘광고산마루길 벚꽃 축제’의 맥을 잇는다. 올해는 벚꽃 철 광고공원 일원의 교통체증과 시민 접근 편의를 고려해 만석공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조혜영/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